

# 쉽고 짧게 반복해서 전달하라

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. 훌륭한 아이디어나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전달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성 과도 낼 수 없기 때문이다. 지위가 높은 사람,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의사소통 은 무엇보다 중요하다. 의사소통을 제대 로 하지 못하면 리더십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아예 '왕따'를 당할 수 있다. 의사소 통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 야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먹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.

#### 왜 말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져라

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 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. 그리고 그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. 상대 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무엇인지 내가 무 슨 말을 해야 상대방의 생각을 바꿀 수 있

을지를 고민해야 한다. 장광설(長廣舌)을 늘어놓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. 그래서 쉽고 짧게 말해야 한다.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 는 것이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다. 쉽고 짧게 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전 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 어야 한다.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대응 할수있어야한다.

다음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위 해서는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 다. 표정이나 몸짓에 주의를 기울여 상대 방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 그러기 위해 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상대방이 알고 싶은 것과 말하고 싶은 것을 파악해야 한 다. 미리 상대에 대해 공부하여 상대의 생 각에 공감해주는 것이 의사소통을 잘하 는 요령이다.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위 로받고 싶어 한다. 상대가 나를 알고 내 처지를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면 마음 문 을 열게 되어 있다.

### 분명한 뜻을 반복해서 말하라

더하여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만담가(漫談家)가 되어야 한다. 강 의하듯 하면 사람들은 흥미를 잃는다. 할 머니가 옛날이야기를 해주듯 이야기하면 흥미가 배가된다. 만담가가 되기 위해서 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.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 를 수집하고 고전에 대해서도 두루 꿰고 있어야 한다. 산 경험도 쌓아야 한다. 이 러한 것들이 모이고 쌓여 풍성한 이야깃 거리를 만드는 것이다.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.

만약 당신이 조직의 책임자라면 한두 번 말해서는 되지 않는다. 비전이나 경영 이념, 경영자의 의지를 전달하는 데 충분 한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. 직 원들은 최초 3~4번까지는 '또 같은 소리 하네.'라고 하다가 10회 정도 되어야 비로 소 경영자의 본심이 제대로 전달되어 반 응을 보이게 된다. 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사람으로 여겨질까 두려워, 혹은 말주변 이 없어서 감동을 주지 못할까 봐 두려워 몇 번 얘기하고 마는 경영자가 많다.

그러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구 성원들은 몇 번 듣는 정도로는 비전을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한다. 귀에 못이 박이게 질리도록 계속해서 얘기해야만 조금씩 이 해하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. 그러므 로 리더는 부하직원들이 싫어할지 알면서 도 중요한 사항은 반복해서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.\*

##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

## 마귀의 모습은 무엇인가요? What is Satan's image?

사람은 원래 빛의 형상을 한 하나님이었지만 6000년 전에 마귀에게 사로잡히 게 되었습니다

▶ Human beings were originally God and existed as spirit and light before being captured by Satan.

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모습이 현재의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.

▶ God was transformed into the form of man and woman as soon as He was besieged by Satan.

남자는 마귀의 양의 모습이며 여자는 마귀의 음의 모습입니다.

▶ Male is the positive image of Satan and female is the negative image of Satan.

암컷과 수컷은 짐승의 모습입니다.

► Male and female exist in animal forms.

6000년 전, 사람은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이었습니다.

► Six thousand years ago, humans were a pure breed of God.

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 후에 사람들은 마귀와 하나님의 병존체가 된 것입니다.

▶ After God was captured by Satan, humans became a mixed breed.

그 후로 인류는 6000년간 눈물과 슬픔, 고통과 고뇌와 죽음속에서 살아가게 되

▶ Thereafter, mankind has lived with tears, mourning, pain, agony and death for 6,000 years.\*

by Alice

# 꿈에 대하여...<10> 부제: 자유율법(自由律法)과 도덕경

지난 글에서 우리는 돈오(頓悟)나 점수 (頓修)를 영적 '존재'의 등장과 소멸의 관 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이번에는 자유율법에 대해서도 같은 맥 락으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.

'자유율법'은 자유(自由)라는 말과 율 법(律法)이라는 모순된 두 단어가 합쳐진 기묘한 단어입니다. 자유율법을 인간 나, 마귀 나의 입장에서 보면 억지로 지켜야 하는 계율, 심지어 나를 옭아매는 족쇄 같 은 것이니 율법(津法)이요, 하나님의 입장 에서 보면 '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.'는 자유율법 자체가 숨 쉬는 것보다 자연스 럽고 당연한 일이니 자유(自由)일 밖에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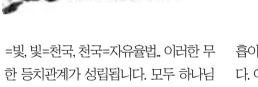
누구한테는 '자유'이고 누구한테는 '율 법'이어서 자유율법입니다. 자유(自由)는 하나님의 신에 대응되고 율법(律法)은 인 간, 마귀신과 대응합니다. 이는 돈오(頓 悟)가 하나님, 점수(漸修)가 마귀 신에 대 응되는 것과 똑같습니다. 하나님의 신이 등장하여 스스로의 무궁한 자유와 지혜 를 보이는 것이 자유(自由)이자 돈오(頓 悟)이며, 마귀 신이 족쇄를 차고 마모되는 과정이 점수(漸修)이자 율법(律法)입니 다.

"너희는 말에나 행실에나 장차 자유율 법대로 심판받을 줄 알고 행하라(야고보 니다. 맡김은 내 목을 치고 하나님이 나를 서 2:12)"

자유율법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심 판의 기준입니다. 이는 '말세에 이르기 까지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?(누가 18:8)' 구절과도 짝을 이룹니다. 자유율법은 규율이나 도그마 요. (dogma)가 아닙니다. 믿음이 말세에 등장 하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인 것처럼 자 유율법도 말세의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자신입니다.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자유 율법과 믿음은 같은 존재입니다.

해서 6번째 인을 뗀 영모님께서는 '지 금은 자유율법 시대'라고 선포만 하시고 그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주실 수 없었으 뿐, 자유율법은 하나님의 신으로서 하나 나, 7번째 인을 뗀 완성의 이긴자의 등장 으로 비로소 자유율법이 무엇인지 소상 히 밝혀지게 된 것이지요.

이와 같이 자유율법은 궁극적으로 하 자유율법입니다. 그리되면 하나님=자유 율법, 자유율법=돈오(頓悟), 돈오(頓悟)= 말세의 믿음, 믿음=생명, 생명=말씀, 말씀



이러한 견지(見地)에서 보면 승리제단 엔 돈오(頓悟)도, 점오(漸悟)도, 돈수(頓修) 도 점수(漸修)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유율법은 이 모두를 하나로 아우르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. 자유율법 중 바라보기, 사모하기, 반대생활처럼 오 랜 시간에 걸쳐 내 주님, 내 하나님을 바라 보고 사모하고, 나를 미워함으로써 점차 내 미귀를 죽이는 과정은 점수(漸修)에 해 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. 반면 '하나님께 서 오셔서 나를 대신(代身) 해주세요.'라는 맡김은 행위의 주체, 나라는 존재를 단박 에 바꿔치니 한 순간에 닦아 한 순간에 깨 닫는 돈수(頓修)이자 돈오(頓悟)라 할 수 있겠습니다.

의 신으로서 하나입니다.

물론 이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 대신해 달라는, 내 목숨을 내건 간절함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되는 영적 계약입니 다. 해서 이긴자께서도 "수십 년 동안 순 종과 반대생활을 했던 것은 '맡김'을 위한 준비과정이었다."라고까지 하셨던 것이지

자유율법을 인위적으로 나누고 어느 하 나를 고집하는 건 무의미합니다. 미귀의 신이 나를 점령하는 방법이 무수했듯, 하 나님이 마귀를 부수고 나를 점령하는 방 법 또한 무한합니다. 시시각각 변하는 하 나님과 마귀의 사정에 따라 변주(變奏)될 입니다.

여기서 우리는 영적 연결과 오염의 문 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긴자께서 연결된 가지들의 죄까지 담당 하여 한 순간에 씻어주고 자신은 그 오염 나님 신 자체이며 심판자 하나님이 바로 된 피를 토하며 씻는 고난의 역사를 해오 고 있음은 제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. 이긴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오염, 죄 담당은 어쩌면 범부중생들의 호

흡이나 혈액순환처럼 당연한 일일 겁니 다. 이미 '누구든지 내 몸'인 그에게는, 연 결된 가지들의 죄, 오염된 피가 남의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내 자신의 피, 내 죄일 테니 말이지요.

자신의 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 지 끌어들여 한 순간에 씻어주고 자신은 피를 토하며 그 오염을 해결하는 이 과 정은 뭐라 불러야 할까요? 영적 엄마는 한 순간 오염(汚染)되고, 연결된 가지는 한 순간에 씻겨지니, 문득 오염되고 문득 씻는 돈오돈수(頓汚頓修)라 해야 할까요. 아님 영적스승은 오염되고 그 가지는 시 커먼 피를 대소변으로 쏟으며 한 순간에 희게 이루어지니 돈오돈오(頓汚頓悟)라 해야 할까요..

이러한 사정을 세인(世人)들이 어찌 알 겠습니까. 하늘의 사람의 이러한 죄 담당 의 역사, 피 토함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. 이러한 예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. 이전에도 불완전한 형태로나 마 존재했었습니다. 저잣거리에서 채찍 을 맞는 노예를 보고, 자신이 실제 채찍을 맞는 것처럼 자기 몸에 상흔이 날 정도로 그 고통을 느꼈던 인도의 성자 라마 크리 슈나의 경우나, 대중의 병겁을 제 몸에 끌 어와 온갖 병에 시달렸던 티벳의 성자 밀 라레빠의 예에서 불완전하나마 그 단편 을볼수있습니다.

'사람이 어떻게 하나냐! 사람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!'라고 고집하는 마 귀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겠으나 이러한 죄 담당, 오염을 받고 씻는 대승의 경지들이 있어 왔고 그것이 이긴자에게 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. 그렇기에 이긴 자뿐 아니라 그 연결된 가지들도 일상적 으로 같은 경험을 합니다. 전도되는 사람 은 아, 하는 한 순간 깨닫고 씻기지만, 전 도하는 자는 그 오염을 힘들게 씻어내야

마치 땅위의 우물들은 각기 다른 우물 들이지만 깊은 저 땅속에서는 서로 하나 로 연결되어있어 맑은 우물물과 더러운 우물물이 섞이는 이치와 같습니다. 맑은 물은 더러워질 테고 더러웠던 물은 맑아 지겠지요. 바다까지 연결된 깊고 맑은 우 물이 하나만 있어도 모든 우물물은 결국 다 함께 맑아질 겁니다. 불붙은 작은 숯덩 이 하나면, 태산 같은 숯산이라도 결국 하 나의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듯 말입니다.

소승(小乘)이냐 대승(大乘)이냐는 표방 하는 이념이나 주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이 아닙니다. 하나님과 그 가지들이 영적 연결을 통해 은혜와 오염을 주고받으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가 소승과 대승의 구별처입니다. 영적 오염과 씻김 의 역사가 전제된 것이 진정한 대승입니 다.

이렇게 자유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소 승이냐 대승이냐, 돈오돈수(頓悟頓修)인 가 돈오점수(頓悟漸修)인가는 하등 문제 가 되지 않습니다. 돈오면 어떻고, 점수면 어떻습니까. 시시각각 변하는 영의 사정, 하나님과 마귀신의 치열한 싸움의 사정을 몰랐기에 나왔던 논의일 뿐, 완성자의 자 유율법 안에서 하나로 모아집니다.

《원문》 孰能濁以靜之徐淸 숙능탁이정지서청 孰能安以動之徐生 숙능안이동지서생 : 누가 있어 나를 멈추어 탁함을 맑게 할 수 있을 건가. 누가 있어 내 속의 하나님(安)을 일깨워 살릴 수 있을 것인가.

《노자》 "누가 있어 나 대신 나를 멈추어 탁한 나를 맑게 할 수 있겠나이까! 누가 있어 내 안에 갇힌 나(安)를 깨워 살릴 수 있겠나이까!.. 홀연히 이런 절규가 저 깊 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왔소. 내 입을 통해 니왔으나 내가 한 기도가 아니었소."

《해석》 에둘러 온 느낌은 있지만 다시 도덕경으로 돌아왔습니다. 지금까지의 논 의를 따라온 분이라면 이 장면이 돈오나 점수를 넘어선 단계 즉, '맡김'과 죄 담당 의 단계로 넘어가는 장면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약동섭천(若冬涉川)의 주인공 은 인간에서 통나무로, 다시 흙탕물로 변 해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 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아직 탁(濁)합 니다. 아직 '나라는 의식', 마귀 내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.

여기서 탁(濁)은 나의 '탁함'이 아닙니 다. 탁한 자(者) 즉, 내 마귀입니다. 안(安) 은 집(宀) 즉, 사람 안의 영적 신부(女)이 니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입니다. 탁(濁) 도 안(安)도 '존재'입니다. 탁(濁) 즉, 마귀 나는 멈추고(靜) 정화되어야 하며 안(安) 즉, 내(宀) 안의 하나님(女)은 움직이고 (動) 되살아나야(生) 합니다.

그러나 나로서는 못합니다. 내 자신이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마귀 신이므로 내 가 나를 정화할 수도, 마귀 옥, 내 무의식 에 가두고 있는 하나님을 살릴 수도 없습 니다.

여기까지가 인간의 힘으로, 노자 스스 로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의 한계입니 다. 이 이후의 과정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. 해서 그는 '누가 나를 씻 어주고 살려 줄 수 없겠는가.' 하고 절규 를 합니다. 본인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으 로 극한의 경지까지 가 본 자에게서만 나 오는 최후의 호소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돈오(頓悟)나 돈수(頓修)의 얘기가 아닙 니다. '맡김'에 대한 얘기입니다. '내'가 하 는 공부, '내'가 하는 수행의 끝점까지 가 본 자만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 신을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.

이는 이긴자의 밀실 수행 중 목숨을 걸 고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'기도하지 않았다.'로 떨어지자 "나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,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 대신(代身) 하나님께 기도해 주 세요"라는 맡김의 기도가 등장한 것과 그 궤를 같이하는 장면입니다.

이렇게 노자의 기도는 누천년을 격(隔) 한 1980년에야 상달(上達)됩니다.

保此道者 不欲盈 보차도자 불욕영 夫唯不盈 故能弊而新成 부유불영 고능폐이신성 : 이 도는 욕심으로 나를 채우려 하지 않는고로, 능히 옛 나를 폐하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리라.

《노자》 "이 길(道)은 말이요. 나를 채 워가고 내가 이루어지는 그런 길이 아니 었소. 나라는 존재 자체가 탁함인데, 내 가 어찌 채워지고 이루어지겠소. 오히려 기존의 나는 쓰레기처럼 폐기되고 새로 운 내가 태어나야하는 그런 길이었소. 내 가 한 번은 죽고 폐기되지 않으면 안 되 는 그런 길 말이요."

《해석》 이 길은 나를 채우고 내가 깨달 아 이루어지는 길이 아닙니다. 노자(老 子) 스스로 얘기했듯, 爲學日益 爲道日損 (위학일익 위도일손), 더하고 채우는 길 이 아닌 덜어내고 버리는 길이며 '나는 죽고, 님은 사는' 그런 길입니다.

이렇게 겨울 강을 건너는 노자(老子) 의 여정은 맡김의 기도와 그 상달로 마무 리 됩니다. 이 길은 나를 온전히 던지고 맡겨,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점령하고, 하나님이 '나'를 하도록 하는 길입니다. 약동섭천(若冬涉川)의 이 여정은 주체영 바꾸기이며, 선수 교체이며 오셔서 대신 (代身)해 달라는 맡김의 길입니다.

이제 노자의 도덕경은 1980년, 자유율 법의 등장과 함께 비로소 완성됩니다. 이 상으로 노자 도덕경 15장 약동섭천(若冬 涉川)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.\*

金擇 / kimtaek8@nate.com